

불교특집
불기 2552년

지혜
의 삶으로
행복해요

선정
의 삶으로
행복해요

“일상생활 禪 아닌 것 없어”

■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일상생활에 선(禪) 아니고 도(道) 아닌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에 집착하지만 깨달으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순간이 바로 도달해야 할 과정이고 목적지더군요.”

“마음을 쉬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선정입니다. ‘무수지수(無修之修: 닦음 없는 닦음)’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돈오무수(頓悟無修: 물럭 깨쳐 닦음이 있을 자리가 없음)’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중(52·법명 如山) 교수,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광우병 치료법을 연구 중인 전문가로 TV 등에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우 교수가 서울대 교수불자모임인 불이회(不二會) 회원이며, 불교적 생명 윤리에 대한 명철한 식견으로 <생명과학과 선>을 저술했고, 그 바탕에는 치열한 구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어려서 신촌 봉원사 인근에 살며 자연히 불교를 접했던 우 교수는 서울고등학교에 다녔던 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불교반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 우희중 교수가 나름대로 내뱉던 답은 “세상에 빛을 갠기 위해 산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택해 공부했던 것도 과학이면 주위에 무엇인가를 해줄

마음 쉬는 것 수행이자 선정 ‘無’자 화두 들고 ‘나’ 찾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당시 지도법사였던 무진장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그였지만, 그를 온전한 불자가 되게 한 것은 삶의 시련이었다.

미국생활에 익숙했던 아내의 귀국반대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우희중 교수는 심한 충격에 빠졌다.

우 교수는 “교과서적이고 합리적·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내게 이혼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지 않다는 결론까지 도달했지만 삶의 기준에 대한 회의를 지울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속에 ‘나’를 알고 싶어 진제·송담 등 선지식을 만났다”고 말했다. 우 교수가 전남 송광사를 찾았을 때 당시 유년였던 현전 스님은 “이것만 하면 된다”며 그에게 ‘무(無)자 화두’를 줬다. 그때부터 우희중 교수는 화두에 몰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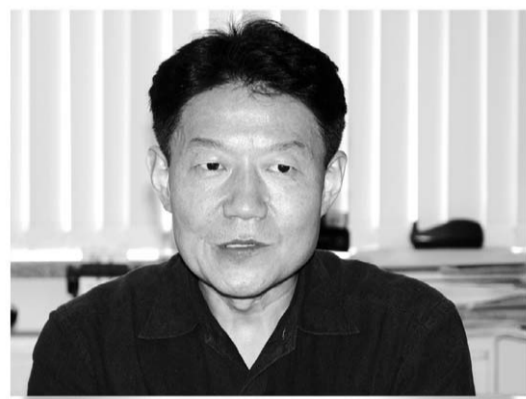
오로지 ‘무’자만 들었다. 우 교수는 “화두에 몰입했다가 적색 신호를 못 봐 사고가 날 뻔도 했지만 특히 운전·운동할 때도 화두 집중이 잘 됐다”고 말했다. “화두 공부를 하다 의문이 생겨 현전 스님을 찾아오 스님은 ‘더 해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가르침이었다”는 우희중 교수는 결국 ‘무’자 화두를 체득했다.

우희중 교수는 “늘 하듯이 화두에 집중하면서 화두에 집중했을 때 멀리서 애절한 곡조의 노래(카루소가) 들었다. 그 순간 노랫소리가 마치 딱 맞는 열쇠처럼... 마치 캄캄한 밤에

전등이 켜지듯 물럭 세상이 환해졌다. 공(空)하지만 딱 찬 듯한 공(空),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었다”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감정은 마음의 바다가 일렁이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등 모든 감정을 여의었다.

그 후 우 교수는 현전 스님에게 여산(如山)이라는 법명을 받고 유발상좌가 됐다. 화두를 깨기 전까지 책 읽기를 권하지 않던 스님은 탁났한 스님의 <평화로운>을 주며 읽으라 권했다. 우희중 교수는 “<평화로운>을 읽으며 ‘무’자 화두를 들며 느꼈던 것들을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계속해서 <경전> 등을 섭렵하며 자신이 체득한 경지를 다졌다.

고교시절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나 혼자 평안하고 잘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빛을 갠기 위해 산다” 했던 고교시절의 자답은 “너와 나 차별이 없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때부터 우 교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행복을



누렸다. 신림동 고시촌 한 사람에서 <금강경>을 강의했고, 소년원 종교위원 봉사활동은 12년을 넘겼다.

우 교수에게는 꿈이 있다. 프랑스 ‘플럼 빌리지’와 같은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종교를 초월한 일반인들의 수행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벌써 거창에 3만평의 터를 마련하고 천천히 준비 중이다.

“깨달음은 방편이지 결국 ‘깨어있음’을 강조한 것 아니겠나”는 우 교수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밖으로 향한 관심을 안으로 돌리면 진리를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부 스님의 ‘휴휴변휴(休休便休: 쉬 필요가 있으면 곧 쉬지니)’라는 구절은 ‘수처자주(隨處作主: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를 뜻한다. 그런 뜻에서 서재를 ‘휴휴재(休休齋)’라 이름했다”는 우 교수는 가장 아끼는 구절이라며 다음의 시구를 소개했다.

“쉬 필요가 있으면 곧 쉬니 산골 사람 노래와 사당의 술에 혼자만 즐겨온 것이, 풍류 없는 곳에 절로 풍류가 일어난다(要休便休 巴歌社酒村田樂 不風流處自風流.)”

조동섭 기자



■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원장

“깨달음은 지혜롭게 사는 것”

“깨달음은 슬기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깨우쳐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불법을 잘 안다(百戰英雄知佛法)’고 말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올해 정년을 맞은 홍익대 금속공학과 김원수 교수(65)는 교수불자협의회(회장 김용표) 창립멤버에 걸맞게 불심이 깊다.故 백성욱 박사 가르침을 따라 40여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금강경> 독송을 해왔다. 5년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원장을 맡아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선 그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실천·수행이 따르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1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재학 시절부터 불교에 매료됐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등 불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그에게 ROTC 장교(학군 3기) 생활은 힘들었다. 군 생활로 오계를 지키기 힘든 것도 고통이었다. 김원수 교수는 “군대에서 힘들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러다 학생 시절 알고 지내던 김재중 법사(금



강경독송회를 통해 1966년 처음 백성욱 박사를 만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백 박사에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판단·감정을 갖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중생심을 바쳐 불심과 바꾸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와 반야 등을 저절로 깨닫는 가르침이었다. “죄무자성중심기(罪無自性從心起)라. 파계도 결국 마음이 지어낸 죄일 뿐이었다”는 그는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까지도 부처님께 바쳐 자유를 찾았고 마음 편하게 군생활을 마쳤다. 전역 후 그는 ‘불교 공부 잘 좋냐’는 생각에 100일만 수행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수행은 4년을 훌쩍 넘겼다. 그는 백 박사 농장에서 수행하던 때를 회고하며 “농장에서 일하며 수행하는 것은 절집 행자생활과 비슷했다. 일하다 보면 분별망상이 가라앉았다. 특히 백 박사의 부처님께 올라오는 감정 등을 바치라는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는 선 수행과 진배 없었다”고 말했다.

낮에는 일했지만 주야로 <금강경> 강독을 했다. 올라오는 생각은 모두 부처님께 바쳤고, <금강경>을 읽을 때는 제3분 ‘대승정중론’을 실천하며 부처님께 법문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여겼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 2번씩 40여년을 <금강경>과 함께 했다.

김원수 교수는 “<금강경> 독송은 헛수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경전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전을 대하는 용심(用心)을 중히 여기는 그는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을 갖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40여년간 한마음으로 읽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하심정(下心亭)’이라는 이름의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하심 해아 업장이 소멸된다. 오만은 업장을 키울 뿐이다. 자기 죄업이 태산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이름이다. 서울 망원동 바른법연구원에서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는 3년을 넘어 이제는 지역의 명소가 됐다.

무료급식 봉사에는 바른법연구원 도반들이 함께한다. 매일 15명씩 자원봉사에 나서 하루 200여명씩 손님을 맞는다. 무료급식 봉사를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 표현한 김 교수는 “대개 준다 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베푸는 생각도 없이 부처님 시봉한다고 생각한다. 하화중생(下化衆生)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불자라면 신심을 갖고 부처님께 다가가

40여 년 ‘금강경’ 독송 믿음으로 슬기·지혜 키워

스스로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백 박사는 깨달음 대신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말했다”며 세상 이치와 통하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슬기와 지혜가 자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법연구원 도반들 모두 하심정 봉사를 수행으로 삼다보니 법열과 희열을 느낀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늘었다”며 ‘식당·병원 등 구제화된 사업을 펼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 성공한 불자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혜는 세상 모든 이치에 분명한 것”이라며 “반야는 세상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숨쉬는 것처럼 필요한데 대중들이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을 대개 마음 밖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설명하지만 백성욱 박사는 마음 속 분별·차별 등이 잘못이라고 가르쳤다. 밖으로 향한 관심을 안으로 돌리고, 모두가 내 착각인줄 알아야 어려움을 볼 수 있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줬다”는 김원수 교수의 다짐에서 불자의 참행복이 엿보인다.

“행복은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행은 부처님과 멀어짐에서 비롯됩니다.”

조동섭 기자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비법을 속성으로 전수하여 자신과 환자가 대만족하니 회원님께 적극 권장합니다. - 의학박사 신충수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정: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용: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침, 난치병), 무통무혈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라틱
- 개강: 2008. 5월 8, 9일(야간반) 19시
5월 9일(주간반) 14시
5월 18일(일요일반) 13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서울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레이키(Reiki·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靈氣)는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바로 기치료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이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 ◆단체교육: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병법이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제(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인 터 넷: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02)720-5719, 720-5682
팩 스: 02)720-5720
핸드폰: 010-8392-2557

전통범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 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고급과정(4개월)
49세 의식 및 천도의식, 지장칭, 시왕도칭, 상응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전시식
- ◆특강(5개월)
전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오공향, 유원승, 오잠작업,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 예수재등
- 2. 수 업: 5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 (경우에 따라 요일을 변경 할 수 있다.)
- 3. 차 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 5. 강의장소: 경북교구중무원 설법전
- 6.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중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7. 접 수 처: 한국불교대학교 경북교구 중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번지
- 8. 연 락 처: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교육원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 공념 학당에서는 기초에서 백가지 비법인 백법까지 마스터 할 수 있는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사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안내 ‘육임이 보인다’

육임공부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강의록이 출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임이 어려워 공부를 망설이신 분은 새로 출간된 ‘육임이 보인다’로 공부 하시면 보다 간결하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작점마다 국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지 않은 시간법으로 초사를 말할수 있도록 강의록에 수록 되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온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박옥자)